

월남전에서의 프랑스 제100기동 전투단의 최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인지반도에서는 소위 제1차 인지전쟁이라는
프랑스와 월맹 간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전쟁은 8년간을 끌었으며, 이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는
한국전쟁에 참가하고 있던 프랑스 대대가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월남으로 이동해 갔다.
이 글은 이 프랑스 대대가 월남으로 이동해 간 후,
제100기동전투단의 기수대대가 되어 활약한 전투 과정을 고찰하여
국제간에 일어나는 비정규전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기술한 것이다.

작전 개요

유엔 참전 16개국의 일원으로 한국전쟁에 참전(1950. 11. 29. 부산 도착)
하여 지평리, 단장의 능선 및 화살머리고지 등에서 용맹을 떨쳤던 프랑
스대대는 휴전이 된 지 약 3개월 만인 1953년 10월 23일 악화일로에 있
던 월남전선의 프랑스군을 증강하기 위해 인천을 떠났다.

이 무렵, 인도지나에서 벌어지고 있던 프랑스와 월맹 간의 전쟁(제1차
인도지나전쟁)은 월맹군이 1950년 2월에 실시한 총공격에 실패하고 난 다
음 다시 게릴라전으로 되돌아가, 그 후 3년 간에 걸쳐 그들의 지배지역
을 꾸준히 확대해 나아가 프랑스군을 하노이 주변으로 압박하고 있었

다. 프랑스군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대부분의 병력을 북부 홍하 삼각주 지역으로 집결시켰다. 이로 인해 월맹군 게릴라의 준동이 극심한 중부 고원에는 월남 제4산악사단을 그리고 19번도로의 방어요새인 안케(An Khe)에는 월남 제11전투단만을 남겨 놓았을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프랑스군 사령부는 취약해진 중부고원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수의 역할을 하게 될 강력한 기동타격부대의 창설을 서두르게 되었다. 이리하여, 연대전투단 규모인 프랑스 제100기동전투단(Groupment Mobile 100: GM 100)이 사이공에서 발족하였다. 이 전투단은 먼저 한국전선에서 이동해 간 프랑스 대대를 근간으로 자체의 예비병력과 2개 월남인 중대 그리고 유명한 베르제롤(Bergerol) 특공대(지휘관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부대 명칭)를 흡수하여 제1한국대대와 제2한국대대로 구성된 ‘한국연대’를 편성하고, 여기에 캄보디아인과 프랑스인으로 혼합편성된 제43식민지대대와 제10식민지포병연대의 제2대대를 편입시켜, 1953년 11월 15일에 창설되었다. 그 후 11월 29일 제5기갑연대 소속 제3전차대대를 흡수함으로써 월남에서는 이와 유사한 부대 중 가장 강력한 부대가 되었으며, 이때의 총병력은 3,498명이었다. 전투단장 바로우(Barrou) 대령은 참모장 겸 한국연대장인 라주아니(Lajouanie) 중령의 보좌를 받아 2주간의 보전협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술 및 전투훈련을 실시하여 출동태세를 갖추었다. 이 제100전투단이 중부고원에 투입된 것은 1953년 12월 중순이었다.

그 후, 프랑스 제100전투단은 월맹군 제108연대와 제803연대를 상대로 닥토·플레이쿠 및 19번도로 등지에서 격돌을 벌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이 전투단은 이들 전투를 치르는 동안 병력과 장비의 보충이 뒤따르지 못하여 전투력은 점차 감소되어 갔으며, 이로 인하여 휴전(1954. 7. 20.)을 며칠 앞두고 전개된 19번과 14번도로에서의 월맹군의 강력한 매복공격을 견디어 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부대가 완전 와해되고 말았다. 몇 명 안 되는 생존자가 사이공에 도착하였지만, 프랑스군 인도지나 사령부는 부대기능을 상실한 제100전투단의 해체를 선언할 수

밖에 없었다.

그 후, 잔류 한국연대원은 한국전선에서부터 계속 사용하던 부대 마크를 단 채 새로운 임무를 찾아 알제리 전선으로 떠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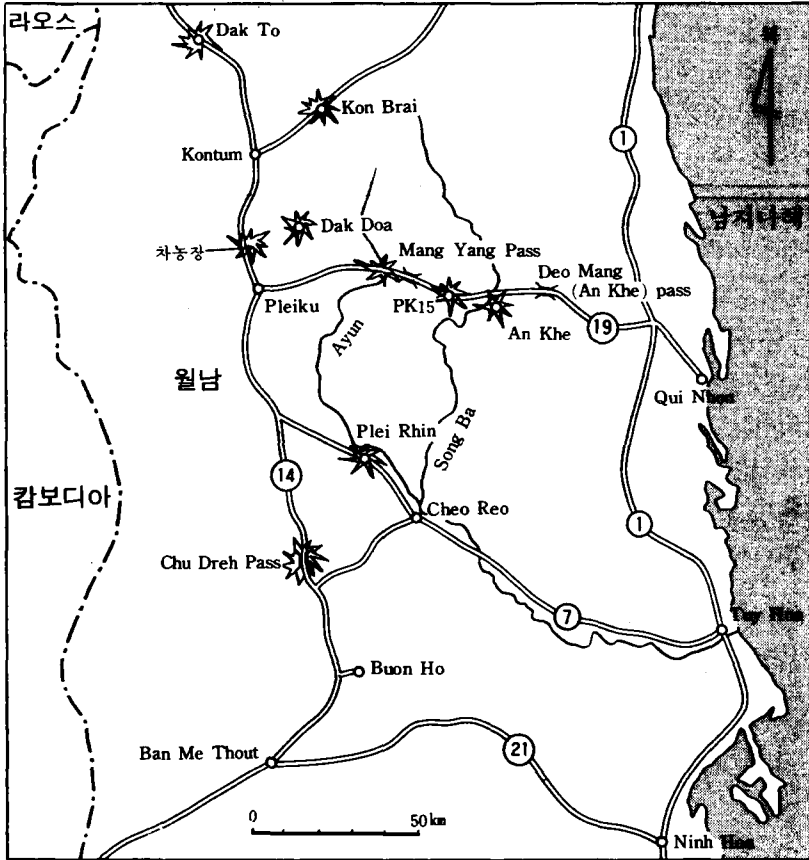
중부고원으로 출동

부대 창설에 따른 교육훈련을 마친 제100기동전투단은 12월 4일 ‘화약 냄새를 맡기’ 위해, 카운터 1호로 명명된 소규모의 게릴라 소탕작전을 사이공 부근에서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부대는 작전 개시 수분 만에 포대진지를 정찰하던 마사고사(Masagosa) 중위가 지뢰를 밟아 첫 희생자를 내게 되었다. 이 전투단은 4명의 희생자를 내면서 하루종일 월맹군을 찾아다녔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12월 6일 이 첫 작전이 종료되었을 때, 전투단의 작전일지에는 3개의 수류탄과 월맹군 포로 3명을 획득하는데 29명에 달하는 전사상자를 낸 것으로 기록되었다. 한국전선에서 그 곳으로 이동한 지 얼마 안 된 프랑스 장병들은 ‘적이 어디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한국전쟁과는 전혀 다른 전쟁’에 직면하였음을 실감하는 첫 전투를 경험한 것이다.

첫 작전을 치른 직후 제100기동전투단은 월맹군 제108 및 제803연대를 격멸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12월 10일~17일 사이에 14번도로를 따라 중부고원 남단에 위치한 부웅 호(Buon Ho)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이 무렵, 월맹군 제108연대는 콘툼(Kontum)을 고립시키고, 월맹군 제803연대는 중부고원과 해안의 투이 호아(Tuy Hoa)를 연결하는 7번도로를 차단하려고 송바(Song Ba) 강을 따라 남하하여 셰오레오(Cheo Reo) 요새를 압박하고 있었다.

프랑스 중부지역 사령부는 7번도로 확보 임무를 제100기동전투단에게 부여하였다. 1954년 1월 1일 제100기동전투단은 부웅 호를 출발하여 4

제100기동 전투단의 작전지역 (1953. 12. 10. ~ 1954. 7.)



일에 쉼 레오에 도착한 다음 110km의 7번도로를 동진하여 1월 28일 해안에 도달함으로써 투이 호아에 상륙한 프랑스 해군부대와 만났다. 바로 이날 콘툼을 중심으로 한 북부 중부고원지역 전체가 월맹 제108연대의 위협하에 놓이게 되자, 제1한국대대는 다시 그 곳에서 160km를 서진하여 플레이쿠로, 제2한국대대는 220km를 서북진하여 콘툼으로 각각 이동하여 그 지역에 점증하고 있는 월맹군 제108연대의 세력을 제거 하라는 명령을 받고 되돌아서 중부고원으로 향하였다.

닥 도아(Dak Doa) 전투 1954년 2월 1일, 드 벨레퐁(de Bellefont) 중위가 이끄는 제2한국대대의 순찰소대가 콘툼시 북동쪽 콘부래(Kon Brai)로 향하던 중 월맹군의 매복 공격을 받아 7명의 전사자와 13명의 부상자를 내었다. 이때, 월맹군은 단지 5명의 전사자를 내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다음날(2월 2일), 콘툼 북서쪽의 닥토(Dak To) 요새를 비롯한 프랑스군의 여러 외각요새가 월맹군 1개 대대의 공격을 받아 실패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 나트랑(Nha-Trang)과 세노(Seno) 기지의 공군력을 이용하여 계속적인 폭격을 가했으나 이들 외각초소의 수비병의 거의 대부분이 희생되고 그 중 몇 명만이 콘툼시의 전초선으로 생환하였다. 2월 7일, 콘툼에 대한 월맹군 제803연대의 포위망이 더욱 더 압축되자 제100기동전투단은 플레이쿠로 철수하였다. 이 곳에서 전투단장은 공세적인 방어를 위한 기동공간의 확보책으로 부대를 넓은 지역에 배치하였다. 전투단장은 플레이쿠 북동방 외각에 있는 닥 도아에 2개 소대를 추진 배치하고, 중간지점에 포병 1개 포대로 증강된 제43식민지대대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포병 1개 포대를 75km 동쪽으로 추진시켜 19번도로의 망양(Mang Yang) 패스 수비를 강화하였다.

2월 11일부터 일주일간, 월맹군은 닥 도아를 집중공격하여 플레이쿠-닥 도아 간 도로를 차단하였다. 2월 17일 오후, 마지막 보급차량을 이끌고 닥 도아에 도착한 제2한국대대의 부와시노(Boissinot) 중위는 그 날 밤을 그 곳에서 보내고 다음날 플레이쿠로 복귀하기로 결정하였다. 바로 이날 밤, 월맹군은 제1한국대대와 그 서측방 14번도로상의 차(茶)농장에 위치한 전투단 본부에 81mm 박격포와 기관총 사격을 집중하여 증원군의 출동을 저지하는 한편, 소규모 정찰대로 제1한국대대의 야영지를 습격하였다. 이로부터 한 시간 동안, 제100기동전투단의 예하 각 부대는 각기 자기 부대의 안전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상황에도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2월 18일 03:35, 맹포격을 수반한 닥 도아에 대한 월맹군의 최종공격이 개시되었다. 월맹군의 포격은 치열하고 정확하였다. 첫번째의 박격

포 일제사격이 발전소에 명중하여 휘발유통에 불이 붙게 되어 요새의 사방을 비추던 탐조등을 비롯한 전 전력의 공급원이 소실되었다. 두 번째의 일제사격이 제방에 구축된 월남인 유격대의 숙소에 떨어져 지붕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세 번째 일제사격으로 부대의 주 무전기가 파괴되었다. 그러나, 다행히 포병관측장교의 무전기로 교신을 계속할 수가 있었다. 03:45에는 닥 도아 요새를 지휘하던 용감한 투제론(Tougeron) 소위가 중상을 입게 되어, 이때부터 부대는 보급차량을 인솔해 왔던 부와시노 중위가 지휘하게 되었다.

프랑스군의 지휘소 호까지 화염에 싸이는 혼란 속에서, 월맹군은 “티엔렌(돌격)! 티엔렌!”하는 함성을 지르며 철조망을 넘어 진내로 돌진하였다. 포병관측장교의 사격요청에 따라 제1한국대대의 지원포대가 이들에게 맹렬한 포격을 가하고 있었으나, 대대규모의 월맹군은 이미 참호선까지 침투하여 프랑스 수비대원을 차례로 살해하고 있었다. 03:50, 포병관측장교인 가르니에(Garnier) 중위로부터 지원포대에 “월맹군이 기지의 반을 점령하였다.”고 하는 교신이 있었고, 04:10에는 포병무전기를 통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정확한 프랑스어 발음으로 “사격중지! 기지는 점령당했음”이라는 말이 들려 왔다. 그러나, 지원포대는 무전기가 공산군에게 탈취당했다라도 수비대는 아직도 싸우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격을 계속하였다. 그 잠시 후 “나는 세리낙(Sergnac) 상사이다. 제발 포격을 중지해 달라!”라는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 왔고, 04:25에 부와시노 중위로부터 수비대의 최후를 알리는 직접교신이 있었다.

날이 새자, 제1한국대대는 20km 떨어진 닥 도아로 진격할 준비를 완료하고, 선봉중대가 숙영지를 출발하였을 때 전투단 본부로부터 “닥 도아 탈환작전을 중지하라. 숙영지를 폐쇄하고 플레이쿠로 철수하라.”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다. 대대장 드 투르베(de Turbet) 소령이 부상자 후송을 위해 5대의 비무장 구급차를 닥 도아로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거부되었다. 이때, 제100기동전투단 본부는 그들의 전투단을 플레이쿠

방어에 투입하기로 결정한 상급부대(중부고원지역 사령부)의 명령을 전달했을 뿐 어떻게 다른 방도를 취할 수가 없었다.

2월 18일 14:40에, 닥 도아에서 부상한 생존자인 모아메드 벨라(Mohammed Ballas) 2등병이 비틀거리며 제1한국대대 숙영지에 나타났다. 죽은 채하여 살아났다는 그의 말에 의하면, 닥 도아를 점령한 월맹군은 포격을 피하기 위한 듯 재빨리 전리품을 챙긴 다음 부상자를 방치한 채 밀림으로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 후 2월 21일 07:30에는 닥 도아에서 부상한 마르셀 밀레(Marcel Millet) 2등병이 월맹군 제803연대장의 서신을 가지고 플레이쿠에 도착하였다. 서신은 4명의 프랑스군 중상자를 닥 도아—플레이쿠 도로의 중간지점에 보내니 비무장 구급차로 인수해 가라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지역사령부의 동의하에 한 대의 구급차가 파송되어 이들을 싣고 11:00에 복귀하였다.

프랑스 제100기동전투단은 이때의 닥 도아 전투에서 프랑스인 80명과 월남인 30명을 잃었다. 그러나, 이것은 고난과 역경의 시초에 불과하였다. 2월 23일, 전투단은 상당한 규모의 정찰대를 닥 도아 방면으로 보냈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정찰대가 복귀할 때, 후위소대가 증강된 1개 중대(월맹군 제108연대 소속)의 습격을 받아 분산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때마침 그 부근에 있던 제5기갑부대의 전차들과 나트랑 비행장으로 복귀중이던 전폭기의 지원으로 이 소대는 전멸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1한국대대는 이때 또다시 19명을 잃었다.

플레이 링(Plei Rin) 전투 1954년 3월 22일 02:54, 월맹군 제803연대가 기관총과 소총 사격을 수반한 맹렬한 박격포 사격을 7번도로와 닥 야 아운(Dak Ya Ayun) 강이 교차되는 지점에 위치한 플레이 링에 반원형으로 포진한 제100기동전투단 진지에 가하기 시작하였다. 뒤이어 검은 복장의 월맹군이 “돌격!”을 외치며 제2한국대대의 제5중대 진지로 돌진하여 부상당한 샤르펜티에(Charpentier) 대위를 포로로 하였다. 플레이 링 시가 쪽도 월맹군의 무반동총 사격으로 불이 붙어 사방을 휩하

게 밝히기 시작하였고, 제2중대의 트럭 2대가 월맹군의 박격포탄을 맞아 파괴되었다. 이때, 이 불빛을 이용한 제5기갑부대의 지원으로 제5중대는 전멸을 모면할 수 있었으며, 중대는 생존자가 합심하여 감행한 역습으로 월맹군에게 포로되었던 사르펜티에 대위를 구출할 수 있었다. 이들 월맹군의 일부는 한때 전투단 지휘소까지 접근하였으나 본부요원의 분전으로 섬멸되었다.

04:30, 기습목적을 달성한 월맹군은 시체 39구와 2명의 낙오자를 남겨 두고 부근 정글로 사라졌다. 반면, 제100기동전투단은 전사 36명, 부상 177명, 실종 8명이라는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이 밖에도 이 전투단은 보유한 탄약을 거의 소진하였다. 이 전투단은 아직도 전투를 계속할 수는 있으나 전투력은 상당히 약화된 상태였다. 창설 때 834명이었던 제1한국대대의 병력이 이때는 532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제2한국대대와 제43식민지대대의 손실 또한 이에 못지않았다. 그러나, 이에 따른 병력의 보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월맹군의 공격은 점차 격심해지고 있었다.

중부고원 지대에서의 격전

프랑스 제100기동전투단은 부상자를 후송하고 간신히 탄약과 연료의 재보급을 완료하였을 때, 또다시 새로운 명령을 받게 되었다. 즉, 19번 도로상에 있는 안케 일대에 점증되고 있는 월맹군의 압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안케 부근으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 것이다. 그때까지 비교적 안전하였던 안케지역이 3월 말에 실시된 월맹군의 공격으로 동측방(해안 쪽)을 방어하던 2개 월남인대대 진지가 유린되어 105mm곡사포 4문을 비롯한 모든 장비가 월맹군의 손에 넘어갔으며, 서측방도 19번도로 남쪽에 출현한 월맹군 제803연대 소속의 제39 및 중화기대대에 의해

차단되었다.

이에 따라 4월 1일, 제100기동전투단은 완전히 전의를 잃은 안케지역의 제11월남인전투단과 교대하기 위한 140km의 행군을 개시하였다. 이 전투단은 닥 도아 갈림길과 아운(Ayun) 강 교량을 지나고 망양고개를 넘어 안케 22km 못미친 곳에 있는 ‘22km 지점(Poste Kilometrique 22: PK 22)’으로 이동하였다. 이 곳에서 안케까지는 무장호송대만이 통과가 가능한 지역이었다. 제100기동전투단장 바로우 대령은 제1한국대대의 제1 및 제4중대와 제43식민지대대의 2개 중대의 호송을 받는 연료보급차량을 안케 11km 못미친 곳에 있는 ‘11km 지점(PK 11)’까지 이동시켰다. 이 지점부터 바로우 대령과 연료보급차량은 안케 주둔 제11전투단에서 ‘11km 지점’으로 마중나온 3개 중대에 의해 안케로 호송되었다. 그리고 14:45, 바로우 대령과 연료를 비운 공차는 제1한국대대와 제43식민지대대가 기다리고 있는 ‘11km 지점’으로 무사히 복귀하였다.

15km 지점(PK 15) 전투 4월 4일 15:20, 제100전투단은 제43식민지대대를 선봉으로 하여 부대 상호간에 체차식으로 엄호와 철수를 교대하는 축차 철수 방식을 취하면서 ‘22km 지점’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11km 지점’을 출발하였다.

선봉대대가 ‘15km 지점’을 무사히 통과하고 뒤따르던 제1한국대대의 차량행렬이 막 ‘15km 지점’에 진입하였을 때, 도로 남쪽에 매복해 있던 월맹군으로부터 소총 및 기관총의 기습사격을 받았다. 선두차량이 폭음과 함께 불길에 휩싸이면서 도로가 막혀 버렸다. 다음 순간, 프랑스군은 또다시 귀를 찌르는 “티엔렌!” 하는 돌격의 함성을 들었다. 제1한국대대는 숲에서 뛰쳐나와 개미 떼처럼 덤벼드는 월맹군 제108연대의 제19대대와 제30독립대대의 인해공격을 받았다. 선두 제4중대의 전장교와 하사관이 순식간에 쓰러졌고, 생존자들은 한 상등병의 지휘하에 도로 북쪽으로 밀리어 최후의 결전에 대비하였다. 그들은 부상을 입고 차량 위에서 신음하고 있는 전우와 월맹군에게 잡힌 전우를 구출하려고 두

번의 역습을 시도해 보았으나 역부족이었다. 이때, 무전으로 이 비보를 접한 전투단 본부는 가용한 부대를 '15km 지점'으로 급파하였다.

피습지점에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은 제1한국대대의 후위중대이었다. 2대의 경전차와 반궤도차를 앞세운 이 중대는 깃발을 휘날리며 정지함이 없이 월맹군 매복지점의 중심부로 직진하여 충격을 가하였다. 이들은 장갑부대의 출현으로 월맹군을 놀라게 하여 그 사이에 제4중대가 혼란을 수습할 수 있기를 바란 것이다. 그러나, 월맹군은 더 영리하였다. 선두 장갑차 '딩고' 호(프랑스군은 통상 개개의 장갑장비에 별명을 붙임)가 월맹군의 무반동총 사격을 받아 전륜 구동축이 파괴되어 정지하면서, 이와 같은 프랑스군의 희망은 무산되고 말았다. 놀랄 정도의 정확성을 갖춘 월맹군의 집중사격으로 뒤따르던 전차마저 전진을 멈추었다. 뒤이어 월맹군이 전차에 기어오르기 시작하였다.

전멸의 위기에 직면한 이 중대를 구한 것은 때맞추어 도착한 두세(Doucet) 대위가 이끄는 제4전차중대이었다. 이 전차중대는 전 전차의 화력과 충격력으로 월맹군을 격퇴하고 제4중대를 수용할 만한 사주방어 공간을 도로상에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월맹군의 공격을 잠시 지연시켰을 뿐이었다. 16:00~17:00 사이에 월맹군은 전차를 향해 피해를 무릅쓰고 4회의 돌격을 감행하였으며, 한때 디아블(Diable) 호 전차와 파손된 덩고 호에 기어오르기까지 하였으나, 백병전 끝에 격퇴되었다. 이와 같이 전차마저 위기에 몰려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근 90분간의 치열한 전투로 전차포탄마저 바닥이 드러났다.

바로 이때 공군의 항공유도기가 나타났고, 뒤이어 둔탁한 엔진소리를 내며 나트랑에서 발진한 B-26 폭격기가 출격하여 유도기의 지시에 따라 급강하하면서 대지공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월맹군은 급히 부근 숲으로 도주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를 본 B-26이 저공비행으로 그들의 머리 위에 담배 모양을 한 검은색의 네이팜탄을 투하하였다. 검은 연기와 불길이 부근 정글에서 솟아올랐다.

뒤이어 제1한국대대의 제3중대가 전차포탄을 적재한 탄약차 1대와 함

계 제4중대의 피습지점에 도착하여 극한 상황하에 놓였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였다. 이리하여 다소 상황이 호전되자, 제100기동전투단은 신속히 전상자를 수습하는 등 부대를 재정돈하고 19:00에 '22km 초소'를 향하여 철수를 재개하였다. 이때 다시 후위에 위치한 제3중대와 전차소대가 월맹군의 습격을 받아 자주포 뒤록(Duroc) 호가 파괴되고 몇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이날의 마지막 싸움은 아니었다. 20:00에는 보병을 엄호하며 22km 초소로 향하던 두세 대위가 지휘하는 기갑중대가 또 한 차례의 매복 기습을 받아 똑같은 전투양상이 반복되어 일어났다. 이때 역시 월맹군이 전차에 달라붙었으며, 이때에는 뒤따르던 전차가 전조등으로 앞선 차를 비치면서 기관총 사격을 가하여 격퇴시켰다. 어떤 전차는 달라붙는 월맹군을 포탑을 회전시켜 떨어뜨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3:00에야 후위 기갑중대가 22km 초소내로 진입할 수가 있었다.

다음날 아침, 제2한국대대와 제43식민지대대에서 차출한 병력으로 편성된 중대규모의 강력한 정찰대가 지난 밤의 매복지점을 정찰하여 실종자 중에서 7명의 시체를 수집하고 월맹군 시체 23구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월맹군이 상처에 붕대를 감아 주고 밥을 주어 도로에 놓아 둔 부상병 1명을 구출하였다.

이 전투단은 이때 또 한 번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 전투에서 프랑스군측은 90명의 사상자를 내었으며, 월맹군측의 전사자는 81명이었다. 제1한국대대의 각 중대 병력은 각각 175명 수준에서 제1중대가 67명, 제2중대가 83명, 제4중대가 94명으로 감소되었다.

그 후, 전투단은 그 동안의 격전에서 25%의 병력을 잃었지만, 명령대로 안케로 이동하여 약체인 제11전투단과 교대하여 19번도로의 경계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4월 9일, 이 전투단은 중부고원지역 사령부로부터 그간의 공적을 높이 찬양하는 부대 표창장을 받았다. 그러나, 전투단이 바라는 것은 표창보다는 부대 보강이었다. 사실 이 무렵, 인

도지나에 도착한 프랑스 보충병은 모두 당시의 격전장이었던 디엔 비엔 푸로 보내지고 있었으므로 병력 보충 우선순위 제4위인 중부고원지역 부대들은 그간에 전혀 병력보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제100기동전투단의 운명은 마치 촛불이 타 내려가듯, 자체 병력을 다 소모하면 그때 부대도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제2차 ‘15km 초소(PK 15)’ 전투 제100기동전투단은 안케의 제11전투단과 교대한 후 가지게 된 잠시의 여가를 이용하여 유일한 보급기지인 비행장을 C-47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보강하였다. 부대의 사기는 4월 15일부터 연이어 일어난 도망병과 자해자의 속출로 뚝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1954년 5월 8일 디엔 비엔 푸가 함락되던 날, 제100기동전투단 장병들은 확성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월맹군의 방송을 들었다

“제100전투단 장병 여러분! 디엔 비엔 푸에 있는 당신들의 동료는 월맹군에 투항하였다. 당신네들은 디엔 비엔 푸에 비교가 안 될 만큼 허약하다. 프랑스군이여, 그대들 앞에는 죽음밖에 없다. 프랑스의 주구 월남인 군인들아, 당신들도 똑같은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1954년 5월은 프랑스 해군이 해안에서 실시한 아틀란타(Atlante) 작전으로 안케는 비교적 조용하였다. 그러나, 6월에 접어들자 월맹군은 프랑스군이 안케에 증원할 부대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총공세 태세를 갖추었다. 이러한 월맹군의 기도를 간파한 프랑스군 중부지역 사령부는 안케 주둔 부대에 대해 월맹군이 19번도로를 차단하기 전에 80km 서쪽 중부고원의 플레이쿠 요새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안케의 주요물자와 1,100명의 민간인은 C-47 수송기로 철수되었고, 후송이 불가능한 중장비와 탄약은 후에 폭격기로 파괴할 수 있도록 비행장에 집적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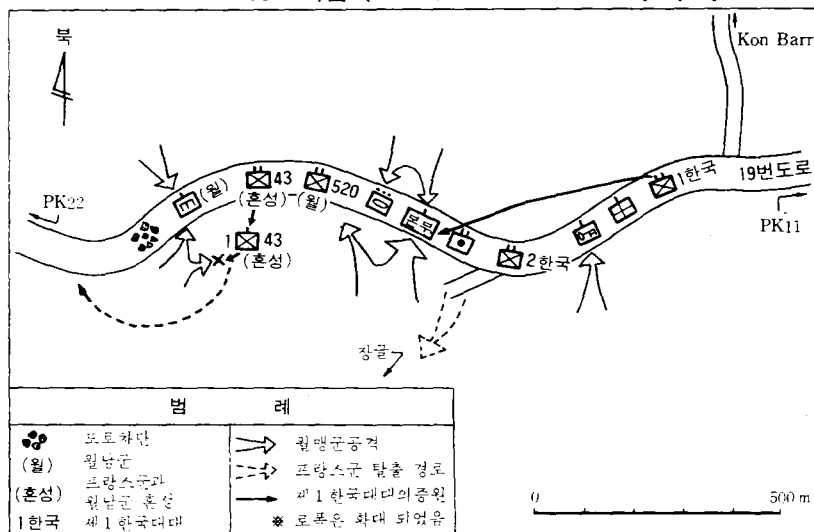
6월 23일, 이날 월맹군 제803연대가 프랑스군 철수부대를 습격하려고

19번도로로 향하고 있다는 첩보가 제100전투단에 입수되었다. 한편, 전투단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하여 월남 산악부족으로 편성된 제42전투단이 '22km 지점' 부근 (망양 패스)에 도착하여 있고, 이를 증원할 프랑스 제1공수단이 곧 22km 지점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1954년 6월 24일 03:00, 제100전투단의 안케 철수가 개시되었다. 이때의 철수대열은 전투경험이 풍부한 제43식민지대대가 선봉에 서고, 그 뒤를 이어 월남인 제520특공대, 전투단 본부 및 본부중대, 포병대대, 제2한국대대, 지원부대가 따르고, 제1한국대대가 후위에 섰다.

철수가 개시된 후 09:30에 후위인 제1한국대대의 후미가 월맹군의 저격을 받아 몇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으나, 그 외는 11:00에 8km 지점에서 제3중대에 독화살이 날아든 이외에는 별다른 접전 없이 철수가 진행되었다. 다만 19번도로 북쪽의 경계임무를 수행중인 비타스(Vitasse) 대위가 지휘하는 바나르 부족으로 편성된 1개 중대로부터 도로 3km 북쪽에 월맹군이 출현하였다는 보고와 정찰기로부터 북쪽 8km 지점인 콘바에서 월맹군을 발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을 뿐이었다.

15km지점 (PK15) 전투 (1954. 4. 4.)



6월 4일 14:00, 경찰기로부터 전방 15km 지점에 돌무덤 장애물이 있다는 경고가 있었지만 지상에서는 이때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 15km 지점부터 19번도로는 키를 넘는 갈대 숲으로 덮인 굴곡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바로 이 갈대 숲 속에 월맹군 주력이 숨을 죽이고 때 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를 전혀 모르고 있던 최전방의 레우존(Leouzon) 대위가 이끄는 제1캄보디아인 중대가 탐색차 숲으로 진입하는 순간 2정의 기관총으로부터 약 30m 거리에서 기습사격을 받았다. 이때 레우존 대위의 시계는 14:20을 가리키고 있었다.

월맹군 제803연대는 이 최후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들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던 휴전회담이 끝나기 전에 중부고원을 장악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었다. 특히, 그들은 아직도 한국전쟁에서 사용하였던 휘장을 달고 있는 한국연대를 그들 땅에서 영원히 소멸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

이렇듯 선봉에 선 제43식민지대대가 습격을 받아 격전에 휘말리고 있을 때 전투단 본부 또한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매우 치열한 기습공격을 받았다. 전방의 제43식민지대대 쪽에서 기관총성이 나고 이어 수류탄의 폭발음이 난 몇 초 후, 본부의 전 행군대열은 월맹군의 정확한 박격포 및 야포의 집중사격을 받아 마치 지진에 휩싸이듯 초연으로 뒤덮였다.

본부의 선두에 선 장갑소대는 미처 전개해 보지도 못한 채 4분 만에 반궤도차 전부(3대)와 M8 장갑차 2대 중 1대에 불이 붙어 폭발하였다. 적탄을 맞아 움직이지는 못하나 그때까지도 사격이 가능한 마지막 M8 장갑차 1대만이 고지 위의 월맹군 기관총을 향하여 산탄(Canister)을 사격하였다. 14:25, 바로우 대령의 지휘통신차량이 파괴되면서 전투단의 지휘통신이 마비되었다.

바로우 대령은 직접 카빈 소총을 들고 본부중대장이 모은 몇 명의 중대원과 함께 고지 위에서 도로상에 늘어선 차량에 집중사격을 가하고 있는 또 다른 기관총을 향하여 공격하였다. 이 역습에서 단장은 한쪽 다리

에 소총탄을 맞아 부상을 하였으며, 본부중대장(Fievet 대위)은 기관총탄을 가슴에 맞고 전사하였다. 이때 한국연대장 라주아니 중령이 이 역습에 가담하였으며, 한 대박에 안 남은 M-8 장갑차의 산탄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여, 본부중대의 반격병력이 거의 고지 정상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순간, 장갑차의 사수가 월맹군의 총탄에 맞아 전사하고 장갑차의 지원사격이 중단되었다. 14:45, 라주아니 중령마저 바로 우 대령이 누워 있는 옆에 중상을 입고 쓰러졌다. 이로부터 얼마 안 되어 본부중대에는 더 이상 싸우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월맹군은 행군대열의 어느 부분을 공격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듯 본부중대 차량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이를 파괴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10분 만에 제100기동전투단의 지휘기능을 마비시켰다. 15:00에는 천지를 진동하는 폭음과 함께 탄약차가 폭발되기 시작하였다.

본부중대의 부상병들을 전멸로부터 구한 것은 이때 막 이 곳에 도착한 후속 2개 행군제대인 제2한국대대와 제1한국대대이었다. 선두의 제2한국대대는 정지하지 않고 도로에 산재한 차량들을 옆으로 치우면서 계속 전진하여, 아직도 불타며 폭발하고 있는 차량 옆에서 재편중에 있는 제43식민지대대와 합류한 다음, 후속 차량중대의 길을 트기 위하여 도로상의 장애물을 치우기 시작하였다. 월맹군의 사격이 잠시 주춤한 사이에 제43식민지대대의 남은 차량이 포위망의 간격을 뚫고 빠져나갔으며, 그후 월맹군의 공격이 재개되자 도로는 다시 폐쇄되었다. 이때 빠져나간 차량이 이 함정을 벗어나 '22km 지점'에 이를 수 있었던 차량의 전부가 될 줄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15:30, 생존자 중 선임장교인 제2한국대대장 클랭망(Kleinmann) 소령이 전투단의 지휘를 맡았다. 이때 월맹군이 박격포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파상공격을 감행하였으나, 프랑스군 포병 제4포대의 직접사격에 의해 격퇴되었다.

16:20, 클랭망 소령은 제1한국대대장 기나르(Guinard) 소령과 협의하여 전면방어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떨어져 가는 탄약을 보충받기 위

한 공중투하지점을 표지하였다. 그 후 B-26 폭격기가 나타나 전면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이들을 엄호하였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여러 곳에서 백병전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프랑스군의 전면방어진지는 완전히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날이 저물었다.

월맹군도 부대를 재편하는 듯 보병의 공격은 약화되고 그 대신 박격포 사격이 치열해졌다. 반면, 프랑스군 제4포대의 포들은 포수들이 거의 전사하고 탄약마저 떨어져 대박격포 사격을 실시할 수가 없었다.

그 동안의 격전에서 제100기동전투단은 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군의관 바름 장빌(Varme Janville) 소령은 이들을 전복된 트럭과 구급차 사이의 작은 공간에 수용하였다. 용감하게 부상병을 치료하려고 뛰어다니던 위생병도 거의 다쳤고, 그 공간에 누워 있는 부상병 가운데는 재차 부상을 입는 사람도 있었다.

17:15, 클랭망 소령은 프랑스군 중부지역 사령부로부터, “모든 차량과 장비를 포기하고 생존자들은 운반할 수 있는 부상자와 함께 ‘22km 지점’으로 탈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무렵, 앞에 있던 제43식민지 대대는 다행히 자력으로 포위망을 돌파하여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제1·제2한국대대의 양 대대장이 직면한 문제는 부상병 처리이었다. 이들이 부상병들을 길도 없는 정글로 운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부상자 1명의 정글 통과에는 8명의 담가병과 2명의 경계병이 필요하였다. 이때 이들로서는 이 부상자들을 길 위에 그대로 놓아 둘 수밖에 없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들은 부상병들에게 필요한 식량 및 의약품과 부상한 위생병 및 이들과 운명을 같이하기로 지원한 의무요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전투단장은 장빌 군의관을 불러 전투단이 철수명령을 받았으므로 19:00에 집적을 끊고 야음을 이용하여 정글 속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는 그의 계획을 알렸다. 군의관은 단장에게 부상병들의 수송을 위해 임시로 휴전을 제의해 볼 것을 건의하였지만 단장은 “나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다.”라고 이를 거절하였다. 군의관은 “부상자들이 나를 절실히 필요로 하니 나는 그들 옆에 있겠오.”라고 말하고 손을 내밀어 악수를 나누는 다음 부상병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러한 장빌 소령의 희생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 후 월맹군들에게 장빌 소령이 부상병의 치료를 요청하자, 그 곳 책임자인 정치장교는 간단하게 “우리 부상병들이 치료를 못 받고 죽어 갔으니, 프랑스 부상병들도 치료를 받을 수 없오.”라고 말하였다. 곧 치료받아야 할 20명이 훌륭한 의료시설을 옆에 둔 채 3일도 못 되어 죽어 갔다. 다른 부상자들도 수백 km에 달하는 포로수용소로의 행군에서 거의 다 사망하였다. 장빌 소령 자신은 정전이 된 후 폐인이 되어 송환되었다.

19:00, 제100기동전투단의 생존자들은 포신에 파괴용 수류탄을 넣어 포를 파괴하고 장비에는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무반동총과 기관총은 탄약이 떨어질 때까지 월맹군 진지를 향해 사격한 다음 제1한국대대, 제2한국대대, 포병 및 제520월남인특공대대의 잔류병 순으로 철수를 개시하였다. 이들은 야음을 이용, 남측방에 배치되어 있는 월맹군을 피하여 서측방으로 쉽게 포위망을 벗어날 수가 있었다.

‘15km 지점’의 매복지역을 벗어난 전투단의 주력은 곧 대부대의 이동이 곤란한 정글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 곳에서 전투단은 장교와 하사관이 지휘하는 소대단위 집단으로 분산한 후 개별적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날 밤 전투단원 중 수백 명이 행방불명되었다. 한편, 이 곳 지리에 밝은 월맹군은 이러한 전투단의 철수상황을 인지하고 정글을 피해 지름길을 따라 ‘22km 지점’으로 먼저 이동하여 정글에서 도로로 나오는 이 전투단원들을 습격하기 위해 그 곳에 매복하고 있었다.

6월 25일, 06:30부터 2시간 사이에 선봉에 선 제1한국대대는 ‘22km 지점’ 5km 범위내에서 3번이나 월맹군 기습을 받고 이들을 격퇴하였다. 그리고 08:00경에는 이 대대의 전위 제4중대가 월맹군의 매복진지를 공격하여 월맹군 12명을 사살하고 그들의 포위망을 돌파하였다. 11:30, 제4중대원은 그들 대열 앞에서 “누구야!” 하는 프랑스말을 들었다. 뒤

이어 전투단의 선봉 앞에 얼룩무늬의 전투복에 기관단총을 든 3명의 프랑스군의 제1공수단 대원이 불쑥 나타났다. 제1한국대대원들은 정신없이 앞으로 뛰쳐나가 그들을 얼싸안고 생환한 기쁨을 만끽하였다.

제100기동전투단은 15km 초소(PK 15)에서 그들 부대의 생명이 거의 다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22km 초소로 비틀거리며 들어온 전투단의 생존자들은 곧 망양 패스로 후송되어 그 곳에서 소켈(Sockel) 대령이 지휘하는 제42전투단의 구호를 받았다. 그리고, 그 중 레우존 대위는 기적적으로 제1중대의 생존자들을 이끌고 이 초소에 도착하였다.

제100기동전투단의 생존자를 수용한 제42전투단은 6월 26일 플레이쿠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이 전투단은 철수 도중 망양 패스 12km 서쪽 아운 강 교량에서 경미한 월맹군의 습격을 받아 20명의 대원을 잃었다. 철수를 재개한 전투단은 6월 28일 11:00, 플레이쿠 30km 못미친 곳에서 월맹군 제30독립대대로 증강된 제108연대로부터 '15km 지점' 전투 못지 않는 맹렬한 습격을 받았다. 이때에는 전투단의 보병부대들이 도로 양편으로 전개하여 전면방어태세를 폈으며 전차가 이들을 엄호하였다. 그리고, 제4포병단이 방어진대의 중앙에 포진하고 그 중심에 위치한 지휘소에서 소켈 대령이 전투를 지휘하였다.

12:15, 월맹군은 풀숲에서 일어나 제1한국대대를 향해 돌진하였다. 이때 이 대대 제1중대의 경우에는 잔류병 60명으로 월맹군 500명을 맞아 용감히 싸웠다. 그러나, 이는 단지 월맹군의 인해공격을 잠시 지연시킬 수 있었을 뿐, 전투가 개시된 지 20분 만에 이 1중대의 진지는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월맹군은 이 간격을 통하여 포진지로 육박하였고, 제4포대의 각포는 직접조준사격으로 이들과 맞섰다.

월맹군이 포진지에 도달하자, 소켈 대령은 제1한국대대의 제2중대에 게 역습을 명령하였다. 13:00, 제2중대는 "코리아"를 외치며 19번도로를 가로질러 월맹군 공격부대의 측방을 강타하였다. 이때 믿음직한 B-26 폭격기가 날아와 기관총탄과 네이팜탄을 퍼부었고 월맹군은 부근

숨으로 퇴각하였다.

제1한국대대의 제1중대는 단 60분간의 이 전투에서 42명의 희생을 치렀다. 제1한국대대가 19번도로상에서 겪은 5일간의 전투에서 입은 피해는 그 이전의 한국전쟁에서 2년 동안에 입은 피해보다도 컸다. 이 전투를 끝으로 제100기동전투단의 생존자들은 6월 29일 플레이쿠에 도착하여 신임 전투단장 마스(Masse) 대령을 비롯한 참모들의 영접을 받았다.

여기에서 전투단은 정밀한 부대의 손실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투단의 본부중대는 222명 중 84명이 살아 남았다. 제1 및 제2한국대대와 제43 식민지대대의 병력은 당초 834명씩이었으나, 452, 497 및 345명으로 감소되었다. 제10식민지포병연대의 제2대대도 474명에서 251명으로 감소되었다. 장비 손실 또한 막대하였다. 차량의 85%, 포의 100%, 통신장비의 68%와 기관총의 절반을 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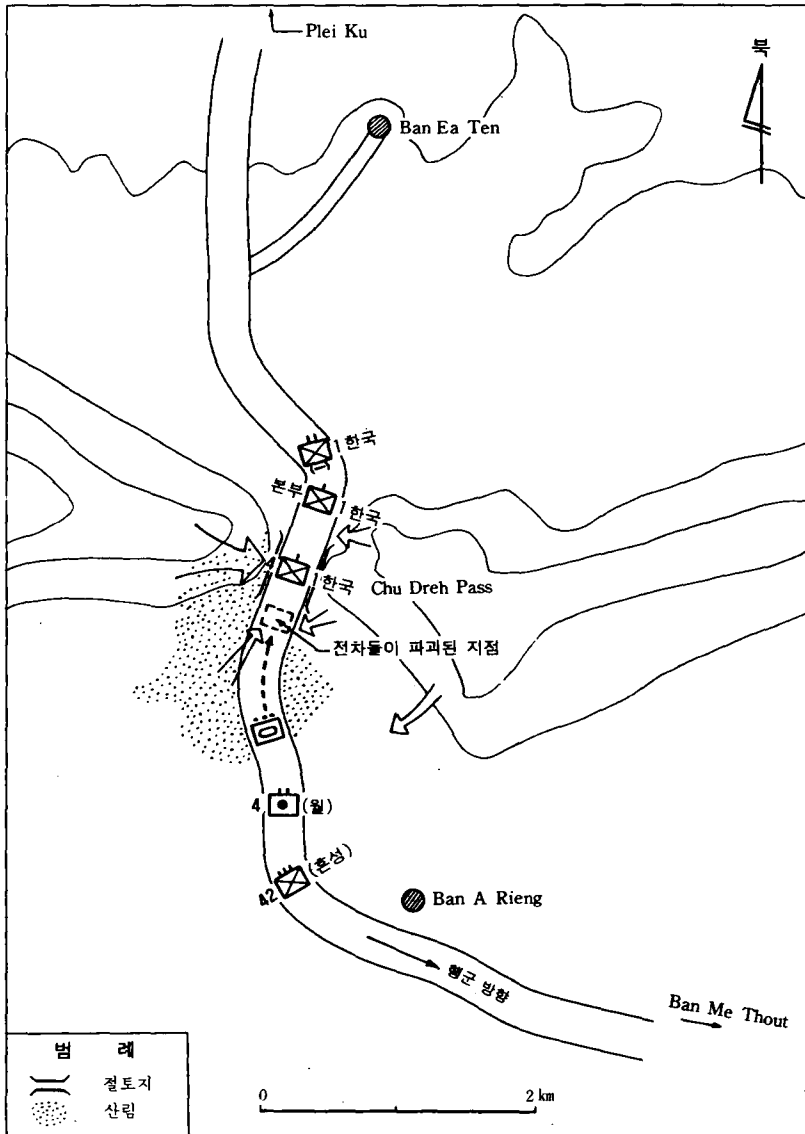
프랑스 제100기동전투단의 최후

제100기동전투단은 물심양면에서 기동타격부대로서의 전투력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부고원 이외 지역의 전황이 불리해지자 그 곳에 있던 제1공수단은 북월맹으로, 월남인 제4산악대대는 월남 해안으로 각각 이동해 가고, 7월 2일 제100전투단에게는 플레이쿠의 방어임무가 부여되었다.

프랑스군 중부지역 사령부는 각부대에서 차출한 약간의 장비(지프 3대, 트럭 6대, 105mm 곡사포 3문)와 약간의 보충병을 전투단에 보충하였다. 이 무렵,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사실 전쟁은 끝나 가고 있었다. 제네바에서는 정전협정의 조문 수정단계에 들어가고 있었으며, 7월 12일에는 망데스 프랑스 수상이 7월 20일까지 휴전을 성립시키지 못하면 사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중부고원 사령부는

슈드레 전투

(1954. 7. 17.)



‘물망초 작전’이라고 명명된 최후공격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물망초(Forget Me Not) 작전 이 작전은 플레이쿠와 그 남쪽의 반 메 투오 간에 자리잡고 있는 슈드레(Chu-Dreh) 패스 일대에서 준동하고 있는 월맹군을 소탕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프랑스군의 모든 보급수송대는 전차, 포 및 항공기의 엄호 없이는 이 패스를 통과할 수가 없었다. 그 때문에 프랑스군은 만부득이 이 월맹군을 소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작전을 지휘하게 된 제42전투단장 소켈 대령은 나트랑에 위치한 지역사령부에 제100전투단의 부대 재정비가 끝나지 않은 것을 들어 작전의 실시를 재고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리하여, 제2한국대대는 플레이쿠를 지키고 제1한국대대는 또다시 사지를 향해 출동하게 되었다.

프랑스 혁명기념일인 7월 14일에 제1한국대대는 월남인으로 편성된 제42전투단의 예하 3개 대대 그리고 지원포병(제4월남포병단) 및 기갑부대(제5기갑연대 제3대대의 중강원 1개 소대)와 함께 작전지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3일 후인 7월 17일 새벽에 공격을 개시한 이 전투단은 08:00에 슈드레 패스 2km 못미친 곳에 위치한 방 에아 탕(Ban Ea Ten) 부락에 진출하였다. 여기에서 제1한국대대는 후위부대가 되고 다른 대대들은 슈드레 패스를 넘어가기 시작하였다.

먼저 제42전투단의 제1, 제5 및 제8대대가 고개를 넘어갔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 다음의 전차와 반궤도차가 통과할 때도 이상이 없었으며, 뒤이은 지휘부도 무사히 고개를 넘어갔다. 11:15에 제1한국대대와 제4포병단이 출발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5분 후 공중관측장교의 긴급사격요구가 있어 포병단은 패스의 남쪽과 서쪽 일대에 사격을 가하고 12:00에 다시 출발하여 고개를 넘어갔고, 그 뒤를 따라 후위인 제1한국대대가 이동을 개시하여 고개에 접어들었다.

12:15, 선봉에 선 제4중대가 고개 정상부에 이르렀을 때, 부근에 매복해 있던 월맹군의 82mm 및 60mm 박격포와 무반동총이 일제히 포문을 열고 기습사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트럭과 지프차가 순식간에 파괴되고 적재하였던 탄약과 연료통이 폭발하기 시작하였다. 절토된 고개 마루에 진입한 제4중대는 그들을 향해 사격이 집중되고 있는 데에도 도로 양쪽에는 이를 피할 만한 도랑마저 없었다. 제4중대는 전멸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제4중대를 뒤따르던 제1한국대대의 본부중대는 도로 서편 쪽에 급히 방어진을 치고 부상자를 구출한 다음 오던 길로 되돌아서 내려가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 월맹군이 파놓은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것이 제1한국대대의 최후이었다.

한국전선에서 단장의 능선 전투와 화살머리고지 전투 등에서 그 용맹을 떨쳤으며, 월남의 양케와 PK 15에서 치른 모진 전투에서도 살아 남은 이 부대가 휴전을 불과 3일 앞두고 이와 같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것이다. 제1한국대대의 생존자들은 부상병을 구출하면서 필사적으로 저항하였다.

이때(12:35), 고개를 넘어갔던 기갑소대에 제1한국대대의 위급한 상황이 전달되었으며, 이 급보에 접한 전차는 보병의 엄호도 없이 고개 쪽으로 되돌아섰다.

이들 전차를 본 월맹군은 무반동총을 사격하지 않고 이를 노획하려는 듯 개미떼처럼 전차에 기어올랐다. 전차병은 이를 무릅쓰고 제1한국대대가 접적을 끊고 철수할 수 있도록 제1한국대대를 공격하고 있는 월맹군에게 전차포 사격을 집중시켰다. 이리하여, 이들 전차는 제1한국대대를 전멸의 위기로부터 구하였다. 그러나, 그 대신 프랑스군은 모든 전차들을 잃었다. 기습을 달성한 월맹군은 오래 머물지 않고 슈드레 언덕의 밀림 속으로 재빨리 사라졌다.

제1한국대대는 이날의 슈드레 전투에서 반 매 투오에 있는 야전병원으로 후송한 부상병 53명을 포함하여 107명이 살아 남았다. 제1한국대대의 생존자들이 다시 집결하기는 하였으나 부대를 재건하기에는 입은

상처가 너무나도 깊었다.

1954년 8월 1일 휴전협정이 발효되었다. 제100기동전투단의 생존자들은 8월 13일 사이공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9월 1일 인도지나 반도 프랑스군 사령부는 제100전투단의 해체를 발표하였다.

단장 마스 대령은 부대일지의 마지막 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제100전투단은 창설 이후 연속적으로 겪은 고난 끝에 9월 1일 해체되었다. 콘툼·닥 도아·플레이 링·양케·19번도로·14번도로·슈드레 등지에서 겪은 격전은 전투단의 역사를 길이 빛낼 것이다. 그리고, 내 눈으로 부대의 최후를 보게 된 것을 애통하게 생각하며 고귀한 생명을 바친 용사들의 명복을 비는 바이다.”

제100기동전투단은 사라졌다. 그러나, 그 정신은 죽지 않았다. 제100기동전투단이 해체된 후에 한국대대의 부대명은 불사조처럼 되살아나 그 전통을 이어 가고 있다. 그리고, 한국대대는 슈드레 전투 일주년이 되는 날, 알제리 전선을 향해 월남을 떠났다.

金 鍾 求(전사편찬위원)